

〈특집〉

## 『서울대학교 法學』 50년을 되돌아보며: 법철학 분야

金 度 均\*

### I. 머리말: 연구 목적, 분석 대상, 분류 기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이 자랑할 만한 점들 중 하나는 기초법 분야의 교수진이 다양하다는 것이고, 그 연구 관심사가 깊고도 넓으며 수준 또한 당대 국내 최고라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법학지에 게재된 논문들에 반영되어 언제나 연구 지평을 새로이 넓혔으며, 기존의 연구 내용을 이론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다. 법철학 분야로 좁혀서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아래에서는 『서울대학교 法學』 50년 동안 법철학 관련 논문들의 주제, 연구내용, 학문적 성과, 학술적 기여도를 살펴보고, 『서울대학교 法學』에 게재되었던 연구의 흐름을 일별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때 길잡이로 삼고자 한다.

이 글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법철학 관련’ 논문은 총 100편이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야 ‘법철학 관련’ 논문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이 글에서는 느슨한 기준을 적용하였다. 법학의 토대 또는 법적 사유의 기초를 다루되 철학적 시각을 활용하였거나, 그러한 기초를 다룬 사상의 논리와 내용을 소개하고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분석하였다면 고찰의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고대의 법사상이나 문헌을 소재로 해서 쓴 논문이라도 통상의 법철학적 주제(가령 정의, 법과 도덕, 법해석, 법적 사유)를 매개로 하고 있다면 법철학적 관련 논문으로 포함시켰다. 그리고 실정법학의 소재이지만 철학적 방법론을 사용하여 분석한 논문들도 고찰의 대상으로 보았다. 그러나 번역과 서명은 제외하였음을 밝혀둔다.

100편의 논문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글에서는 ‘시대순’이라는 기준을 채택하였다. 각 시기별로 어떤 법철학적 논문들이 게재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법철학적 주제 의식 및 주제를 다루는 방식의 변천을 일별하는 데 유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각각의 주제에 반영된 또는 각각의 문제의식을 낳은 당대 법현실을 알 수 있고, 다시 그 법현실을 바라본 저자들

---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법학대학원 부교수.

의 해석적 태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 II. 1960년대

필자가 보기에 『서울대학교 法學』에 실린 최초의 법철학 관련 논문은 헬렌 실빙 교수의 영어 논문 ‘Guilt’(제4권 제1/2호, 1962, 25-47면)이다. 비록 형법학적 소재를 다루고 있지만, ‘guilt’라는 법학의 근본개념을 철학적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그 법학적 함의를 고찰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훌륭한 법철학 관련 논문이라 보았다. 철학적 의미론의 성과를 수용하여 ‘guilt’ 개념의 의미를 고찰하고, 그 형식적 의미요소(공통 의미 요소)를 추출한 후 그에 대한 사회적 해석(‘사회적 의미’)들을 살펴보면서 일반이론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제시한 이 논문은 당시 법철학계 및 법학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2년 후 김철수 교수는 ‘풍토적 자연법논고’(1964)에서 이항녕 교수의 풍토적 자연법론을 서구 법철학, 특히 독일의 법철학적 성과에 비추어 어떤 의의를 갖는지 분석하면서 그 위상을 평가하였다. 법철학의 좌표에서 이항녕 교수의 견해가 어디에 위치하며 어떤 맥락에서 장단점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고찰하면서, 김철수 교수는 당시 국내 법철학의 흐름과 나아갈 방향에 대한 통찰력 있는 제언을 하였다. 소장학자 다운 패기와 예리함이 돋보인 글이라고 본다. 1965년 황산덕 교수는 ‘동양 고대의 법사상’ 논문에서 주로 고대 중국의 법철학을 고찰하였다. 法, 禮, 義, 天法, 天命, 律, 度, 紀綱, 理, 則과 같은, 고대 중국의 법적인 근본 개념들 및 사유를 문헌학적으로, 그리고 철학적으로 분석하여 동양 법철학 연구의 단초를 기초를 제공하였다고 생각한다.

당시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던 자연법론자 이태재 교수는 ‘소유권사상의 변천이 법률제도에 미친 영향’(1967)에서 소유권에 대한 철학적 견해와 법제도 사이의 관련성을 다루었다. 아퀴나스의 자연법론을 수용한 자연법론자 답게 소유권을 개인의 품위와 공공복리라는 양 축으로 고찰하면서 소유권제도의 철학적 기초를 규명하였다.

전형적인 법철학적 주제를 다룬 ‘본격적’인 법철학 논문은 당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철학 교수였던 전원배 교수의 ‘악법의 법리’(1969)다. 나찌 악법을 둘러싼 Radbruch, Hart, Fuller 사이의 논쟁을 소재로 해서 전원배 교수는 악법을 법철학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하여 매우 치밀하게 논구를 하였다. 악법

판단의 기준을 제시한 후, 법실증주의 측에서 개진한 논변 및 법실증주의 배경론에서 제시하는 논변과 관련해서 전후 독일 법원 내부에서의 논쟁과 당대 독일 법철학자들의 견해를 매우 상세하게 다루고 있어, 추상적인 이론 외에도 법실무자들 사이의 구체적인 논의를 알고 싶은 독자에게는 아주 유용한 논문이라고 생각한다. 이 논문은 당대 국내 법현실에 대한 법철학적 성찰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아도 좋지 않을까 싶다. 악법의 법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구자라면 필독해야할 논문이라고 본다. 이후 악법의 법리에 대한 수준 높은 논의는 36년이 지나서야 심헌섭 교수의 ‘5·18 불기소처분의 법철학적 재검토’ 논문으로 나오게 된다.

60년대 법철학 관련 논문들을 도표로 만들면 다음과 같다.

연번	제목	필자	발행호수	발행년
1	Guilt	Helen Silving	제4권 제1/2호	1962
2	풍토적 자연법논고	김철수	제6권 제1호	1964
3	동양고대의 법사상	황산덕	제7권 제1호	1965
4	소유권사상의 변천이 법률제도면에 미친 영향	이태재	제9권 제2호	1967
5	악법의 법리	전원배	제11권 제1호	1969

### III. 1970년대: 법철학의 토대 확립

70년대 험난한 법현실을 예상이라도 하듯, 1971년 전원배 교수는 ‘실정법의 효력의 근거와 한계—법관의 양심방향에 관한 법철학적 고찰’을 시작으로 법철학 연구의 물꼬를 텃다. 1969년 ‘악법의 법리’에 이어 당대 법현실에 대한 법철학적 성찰을 담은 논문이다. 당시 제3공화국 헌법 제98조 “법관은 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조항에서 나타난 사법권의 독립과 법관의 양심 문제를 실정법의 효력과 한계라는 주제의식으로 풀어낸 것이다. 이 논문은 동 조항에서 규정하는 ‘법률’이 실정법을 뜻한다면, 법과 법률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연구주제로 삼았다. 실정법의 개념과 존재근거, 효력이라는 측면에서 동 조항을 법철학적으로 분석해 낸 이 논문은 사물의 본성이라는 법철학적 개념을 본격적으로 등장시켰고, 법적 사유로서의 유추를 강조했으며, 법과 법률

은 구분되기는 하지만 상호배척하는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견해 위에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제시한다.

“법관은 법률을 무시하고 자기의 법감정에만 따르는 자도 아니고, 조문의 배후에 있는 법을 무시하는 자도 아니다. 양심적인 법관은 법률과 법에 다같이 봉사하는 자, 즉 법률에 대한 성실과 동시에 법을 발견하려고 힘쓰는 자일 것이다. 양심에 따른 법관은 법률속에서 - 인용자] 법의 전체를 기대하지도 않고, 또한 법의 장애를 예상하지도 않는, 오직 법실현의 수단을 발견하는 자인 것이다.”

1972년 『서울대학교 法學』 특집호에 게재된 ‘Legal Realism에 대한 법학도의 반응’은 개념법학의 인식론적 전제와 그 법이론적·실천적 한계를 비판하면서 칸토르비츠의 자유법론과 미국의 Legal Realism의 견해를 상세하게 고찰하고, 법해석 및 법판단의 과학화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당시 한국의 법현실에서 사법부가 직면한 어려움을 법철학적으로 극복해보려는 이론적인 시도였을 것이다.

법적 사유의 과학화를 향한 노력은 최대권 교수(당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의 ‘법에 있어서의 근대화’(1973)로 이어졌다. 비록 법사회학적인 관심사에서 출발하기는 했지만, 당시 한국의 법문화와 법적 사유, 법의식을 분석한 소장학자 최대권 교수의 문제의식은 매우 치열했고 그 법이론적 수준은 매우 뛰어났다.

이와 같은 배경 아래 본격적인 법철학 분야에서 새로운 흐름이 등장했다. 1973년 당시 숭전대학교(현 숭실대학교) 법경대학 조교수였던 심현섭 교수가 ‘법률적 삼단논법—논리적·철학적 소고’라는 논문을 낸 것이다. 이 논문에서 심현섭 교수는 당대 논리학, 메타윤리학, 규범논리학 및 법철학의 성과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정언적 삼단논법, 실천적 삼단논법, 법률적 삼단논법 사이의 관련성을 해명하고 법적 추론의 특성을 추출한 후, 법적 판단의 ‘과학화’를 위한 이론적 토대를 확립하였다. 이른바 법철학의 ‘신시대’가 열린 것이다. 분석적 법철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심현섭 교수의 논문은 문자 그대로 철학과 법학의 양대 영역을 연결하는 ‘법철학’으로서, 더 이상 법철학이 난해한 형이상학적 용어들로 가득한 분야가 아닌, 분석철학의 관점에서도 유의미한 학문임을 보여준 역작이라고 평가된다.

1974년은 법사회학적 연구가 활발하던 한 해였다. 1974년 『서울대학교 法學』 제15권 제1호는 한국 사회의 법문화와 법의식에 대한 법사회학적 분석을 담은 귀중한 논문들로 가득 찼고, 이 논문들은 후에 법사회학 연구자들을 이끄는 선구자적 역할을 하였다. 법철학 분야에서는 1977년 심현섭 교수(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가 ‘법과 도덕의 관계’라는 전통적인 법철학적 주제를 다룬 논문을 발

표하였다. 도덕을 유형화하여 이에 법이 어떻게 조응하고 있으며, 어떻게 조응하여야 하는지를 다룬 이 논문은 영국과 독일에서의 법철학적 성과를 고찰하면서 한국 사회에서 법이 지배윤리(또는 도덕)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다루었다. 다원화된 민주사회에서 도덕에 대한 법의 중립성 문제가 중요하게 될 것임을 암시한 논문이다.

근대한국 법사상사 연구의 대가인 전봉덕 박사가 1978년 ‘전통적 사회와 법사상’을 발표했으며, 같은 해 심헌섭 교수가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에서 사람들의 생활을 규율하려고 할 때 법이 부딪치게 되는 한계와 법이 관여해서는 안 되는 한계를 분석적으로 규명하여 당시 국가권력의 법만능주의 사고(법률에 의한 통치와 통제)를 제한하는 데 필수적인 법철학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이어 1979년 심헌섭 교수는 ‘존재/당위 이원론의 논리와 현대논리학’이라는 매우 짧은 논문에서 이른바 ‘비인식주의’의 관점에서 존재/당위 이원론의 문제를 다루었다.

70년대 중후반은 법제사와 법사회학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인 시기이기도 하지만, 법철학의 분야에서는 심헌섭 교수의 노력으로 그 이론적 기초가 탄탄하게 확립되고 세계적 수준으로 한국법철학이 진입하는 때이기도 했다. 70년대 법철학 관련 분야의 논문들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연번	제목	필자	발행호수	발행년
1	‘실정법의 효력의 근거와 한계—법관의 양심방향에 관한 법철학적 고찰’	전원배	제12권 제1호	1971
2	Legal Realism에 대한 법학도의 반응	전원배	특별호 제2호	1972
3	법에 있어서 근대화	최대권	제13권 제2호	1972
4	법률적 삼단논법	심헌섭	제14권 제2호	1973
5	법과 도덕의 관계	심헌섭	제18권 제1호	1977
6	전통적 사회와 법사상	전봉덕	제19권 제1호	1978
7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	심헌섭	제19권 제2호	1979
8	존재/당위 이원론의 논리와 현대 논리학	심헌섭	제20권 제1호	1979

#### IV. 1980년대: 법철학의 좌표 확장

70년대 그 이론적 토대를 확립했다면, 80년대 들어서서 법철학 분야에서 연구자들은 법철학적 연구의 관심사와 연구대상 분야를 확장해가기 시작 했다. 우선 1980년 12월 그 험난한 시기에 심헌섭 교수는 ‘법의 효력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한다. 법효력에 대하여 다층적이고 복합적으로 고구한 끝에 그 근거를 국민의 승인에서 찾았던 이 논문은 당시 법과대학 학생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비록 그 제목은 냉정할 정도로 건조했으며 내용 또한 매우 이론적으로 어려웠지만, 당대의 법현실에 절망하고 있던 학생들은 이 논문의 이면에 깔려 있는 저자의 문제의식을 간취해냈다. 당시 정권이 제정하고 운용하던 법률들의 효력을 문제 삼을 때 법철학적 기초로 인용되었던 이 논문의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다. 80년대 초반에 법과대학을 다니던 학생들 중 법철학 연구자가 대거 탄생하게 된 것도 이 논문과 심헌섭 교수의 저서 『법철학 I』의 영향 때문이라고 해도 과장된 말은 아닐 것이다.

최종고 교수는 『서울대학교 法學』 동권 동호에서 ‘중세독일에 있어서 법관념과 법발견’을 발표하였는데, 이 논문에서는 법철학적 사유의 역사성 탐구라는 방법론적 문제의식이 잘 드러났다. 이후 최종고 교수의 법사상사 및 법학사 연구방법론의 모체가 담겨 있는 소중한 논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1981년 법철학 분야에서 특이한 논문이 발표되었다. 동국대학교 법정대학에 재직하던 한상범 교수가 발표한 ‘환경권의 법철학적·생태학적 논구의 시도’라는 논문은 환경권의 철학적 바탕을 인간관 및 사회관의 측면에서 다루고, 생태학적 사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법적 차원에서 생태학적 성찰이 기존의 관점과는 어떤 차이를 낳게 되는지를 다룬 이 논문의 의의는 법철학 연구대상의 범위가 확장되는 징조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법의 효력에 관한 연구’에 이어 심헌섭 교수는 ‘법과 힘’이라는 논문을 1981년에 발표한다. “법과 힘! 이 또한 법철학의 근본문제 중의 하나이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이 글은 법과 힘의 관계를 강제, 사실력, 정신에 대한 힘, 정당한 힘이라는 측면에서 단계적으로, 복합적으로 고찰한다. 법과 힘의 문제를 법이 법이념의 규준 밑에 있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비추어서 고찰한 후, 권력분립, 기본권보장, 행정 및 사법의 합법성, 비례의 원칙이 작동되는 법치국가 원리와 결합한다. 법과 힘의 상호 관계는 영원한 법철학적 주제이지만, 그것이 당시 한국

사회의 법현실에서 가지는 함의는 매우 컸다. 즉, 주제의 적실성 측면에서 매우 의미심장한 논문이었다는 것이다. 언제나 그렇듯이 심헌섭 교수는 절제된 개념과 성찰적 어조로 뜨거운 주제를 심층적으로 그리고 예리하게 분석하였고, 암울한 현실에서 법철학이 이론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갔다.

당시 법학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던 학생들과 법률가들, 법학자들의 마음상태를 알기라도 하듯, 1982년 심헌섭 교수가 발표한 ‘법학의 학문성(상)’은 혹독하게 냉소적인 키르히만의 지적으로부터 시작한다. “법률가들은 실정법으로 인해 오직 썩은 나무에서만 사는 벌레들이 되어 버렸다. 성한 나무는 멀리한 채 그것이 집 짓고 활동하는 것은 오직 병든 나무일뿐이다. 학문은 우연을 그 대상으로 삼으면서 그 자체 우연이 되어 버린다; 입법자의 세마디의 정정(訂正)의 말 그러면 전 장서는 휴지로 되어버린다.”(“drei berichtigende Worte des Gesetzgebers und ganze Bibliotheken werden zu Makulatur.”) 정녕 법학은 학문일 수 있는가? 아니면 권력자가 제정한 법률의 시녀(“우연, 오류, 욕정, 무지의 시녀”)일 뿐인가? 법대생, 법학자, 법률가라면 그 누구도 이 고민과 ‘유신 밥대’라는 모멸적인 자의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던 시기에 심헌섭 교수의 논문은 ‘법학을 한다는 것의 가치’를 일깨워주었고, 법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었다. 비록 법현실의 문제를 직접 다루지 않아도 그 영향력이 멀리, 그리고 크게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이 논문은 잘 보여 주었다 할 것이다.

법학의 학문성에 대한 고민은 법학방법론에 대한 학문적 성찰로 이어졌다. 1983년 제24권 제1호에서 법학방법론과 관련해서 법철학적, 법사회학적, 법사학적 고찰을 담은 논문들이 실렸다. 심헌섭 교수의 ‘법철학적 법학방법론—법철학과 합리적 법학방법’은 법해석의 방법과 기준에 대한 법철학적 분석을, 최대권 교수의 논문 ‘법사회학적 법학방법론—법발견에 있어서의 법사회학적 접근’을, 최종고 교수는 ‘법사학적 법학방법론’을 발표하여 국내 법철학계와 법학계의 큰 주목을 받았다. 기초법학의 영역에서 법학방법론이 다각도로 다루어졌다는 것은 법학자들 내부에서 법학의 학문성에 대한 자신감이 증대해간다는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할 것이다. 그리고 각각의 논문은 법학방법론과 관련된 국내 문헌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같은 해 법철학 분야에서 제도주의적 이론의 발전사를 독일어로 발표한 최종고 교수의 논문들(Quellengeschichte der Institutionslehre in der Rechtsphilosophie (I), Quellengeschichte der Institutionslehre in der Rechtsphilosophie (II))도 주목할 만하다.

법학방법론에 대한 관심은 계속 이어져서 1984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국제법을 가르치던 배재식 교수가 ‘법학방법론서설’을, 1986년 최병조 교수가 ‘로마시대의 법률이해와 법률해석—서론적 고찰’을, 1987년 최종고 교수가 ‘기초법학의 과제와 방법’을, 1989년 최대권 교수가 ‘제정법의 해석’을 발표하면서 법학방법론 분야에서의 일정한 합의가 이루어진다. 특히 최병조 교수는 법률관과 법해석방법론과 관련하여 로마법률가들 및 법학자들의 견해를 문헌에 대한 정밀한 연구에 바탕을 두고 재구성해냄으로써 법개념론 및 법학방법론 분야에서 매우 가치 있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최병조 교수의 논문은 법적 사유의 역사성과 보편성 문제를 건드리는 한편, 법학방법론의 기원과 발전과 관련해서도 귀중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심헌섭 교수는 법학방법론 이외에도 법적 안정성(‘법적 안정성에 관한 연구’)과 정의론(‘정의에 관한 연구 其一—정의의 기본개념과 기본원리’)과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냈으며, 일반조항에 대한 깊이 있는 논문(‘일반조항 소고—분석적 소고’)을 발표하였다. 위 세 논문은 해당 주제에 대하여 독보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고 평가된다.

80년대 기초법학 분야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을 꼽으라면 1984년 박세일 교수가 발표한 ‘미국에서의 법경제학의 연구동향’과 1986년 ‘코-스 정리의 법정책학적 함의’가 『서울대학교 法學』에 게재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법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기존의 패러다임과는 완전히 다른 법철학이 등장한 것이다. 법경제학적 사유는 당시 법과대학 학생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정책도구로서의 법이 가지는 역할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면서 법경제학은 법철학적 사유의 지평을 넓혔다. 필자는 당시 박세일 교수의 논문들을 읽고 받았던 충격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

이전의 시기와 비교할 때 그 양적인 측면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린 80년대 법철학 관련 분야의 논문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번	제목	필자	발행호수	발행년
1	법의 효력에 관한 연구	심헌섭	제21권 제1호	1980
2	중세 독일에 있어서 법관념과 법발견	최종고	제21권 제1호	1980
3	환경권의 법철학적·생태학적 논구의 시도	한상범	제22권 제2호	1981
4	법과 힘	심헌섭	제22권 제3호	1981
5	법학의 학문성(상)	심헌섭	제23권 제3호	1982
6	법철학적 법학방법론-법철학과 합리적 법학방법	심헌섭	제24권 제1호	1983
7	법사회학적 법학방법론-법발견에 있어서의 법사회학적 접근	최대권	제24권 제1호	1983
8	법사학적 법학방법론-법사학의 과제와 방법	최종고	제24권 제1호	1983
9	Quellengeschichte der Institutionslehre in der Rechtsphilosophie (I)	최종고	제24권 제2/3호	1983
10	Quellengeschichte der Institutionslehre in der Rechtsphilosophie (II)	최종고	제24권 제4호	1983
11	법학방법론서설	배재식	제25권 제1호	1984
12	법적 안정성에 관한 연구	심헌섭	제25권 제2/3호	1984
13	미국에서의 법경제학의 연구동향	박세일	제25권 제2/3호	1984
14	로마시대의 법률이해와 법률해석-서론적 고찰	최병조	제27권 제1호	1986
15	코-스 정리의 법정책학적 함의	박세일	제27권 제2/3호	1986
16	기초법학의 과제와 방법	최종고	제28권 제1호	1987
17	‘정의에 관한 연구 其一—정의의 기본개념과 기본원리’	심헌섭	제29권 제2호	1989
18	일반조항 소고-분석적 소묘	심헌섭	제30권 제1/2호	1989
19	제정법의 해석	최대권	제30권 제1/2호	1989

## V. 1990년대: 법철학적 연구의 다양화

90년대 법철학 분야 연구의 특징은 다양화(관심과 대상의 다양화)이다. 90년대 법철학 관련 논문들의 연구 주제를 유형화해보면 그 이전보다 훨씬 다양해졌음

을 알 수 있을 것이다.

## 1. 법개념론과 법효력론의 차원에서

우선 전통적인 법철학 주제인 법개념론과 관련해서 다양한 연구가 쏟아졌다. 80년대 독일 법철학계에서 진행된 자연법론-법실증주의 논쟁을 정리한 심헌섭 교수의 논문 ‘법개념에 관한 논의-Dreier, Hoerster, Krawietz’(1990)가 그 물꼬를 텄다. 이어 안경환 교수가 ‘영국법과 미국법의 비교연구(IV)-법원(法源)의 정립과 구체적 적용’(1992)을 발표하여 법철학적 논쟁이 구체적 현실에서는 어떤 내용의 논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1994년 심헌섭 교수는 ‘Ota Weinberger의 제도적 법실증주의’(1994) 논문에서 법실증주의 신경향으로서 제도적 법실증주의를 소개하면서 기존의 자연법론-법실증주의 논쟁의 성과를 종합하려는 시도를 한다. 그리고 황산덕 교수 추모 논문인 ‘석우 황산덕 박사에 있어서의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에서 국내 법철학의 선구자인 황산덕 교수가 생존 당시 이루었던 법개념론을 다루면서 국내 법철학의 이론적 계보를 환기시키고자 하였다.

90년대 법개념론 및 법효력론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업적을 꼽으라면 필자는 서슴없이 심헌섭 교수의 두 논문 ‘5·18 불기소 처분의 논거에 대한 법철학적 재검토-분석과 비판’(1995)과 ‘권위에 관하여-배제적 법실증주의에서 포용적 법실증주의에로’(1998)를 든다.

앞것은 1995년 12·12 및 5·18 쿠데타의 합법성과 정당성 여부가 한국사회에서 법적인 쟁점으로 떠올랐을 때 발표한 논문이다. 당시 검찰은, 쿠데타(내란)가 성공하여 국민들의 승인(국민투표 또는 대통령선거 등)을 통하여 새로운 법질서를 구축하였다면 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따라서 쿠데타 행위는 더 이상 내란이 아니며 사법적(司法的)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였다. 당시 검찰은 “정치적 변혁과정에서 새로운 정권과 헌법질서를 창출하기에 이른 일련의 행위들이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사법부에서 판단된 사례가 없으나, 정치적 변혁의 주도 세력이 새로운 정권 창출에 성공하여 국민적 정치적 심판을 받아 새로운 헌정 질서를 수립해 나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논변에 입각하여 그 법적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① ‘사실적인 것의 규범력’ 논변: 독일의 헌법학자 엘리네크(와 심헌섭 교수)의 견해에 서서 보면 “새로운 정권이 출범한 현실을 인정하고 그 정권 형성의 기초

가 된 사실행위에 대하여 사실의 규범력을 인정하여 사후에 법적 인증을 하여야 한다.”

② ‘근본규범 변동’ 논변: 켈젠의 견해를 따라서 보면 “정치적 변혁이 성공하여 새 질서가 실효적으로 되면 새 질서가 법률질서로 되며, 이는 근본규범의 변동으로 새로운 정부가 법 정립의 권위로 인정되는 데 따른 것으로 만약 정치적 변혁이 실패하여 새 질서가 실효적이 되지 못한 때에는 헌법정립이 되지 못하고 일련의 행위는 범법행위를 구성한다.”

③ ‘법적 안정성’ 논변: 라트브루흐의 견해를 따르면 “재래의 실정법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법질서가 수립된 경우에는 법적 안정성의 요구에서 이러한 사태가 법의 기초가 되어 법적 효력을 인정받게 된다.”

이와 같은 검찰의 법철학적 논변에 대하여 당시 법철학자들의 분위기는 ‘당혹과 불쾌감, 불만족감, 아연함’으로 나타났고, 즉각 검찰의 논변에 대한 법철학적 분석과 비판이 이어졌다. 법실증주의적 견해를 취했던(그랬기 때문에 검찰의 논변에 ‘왜곡되어’ 원용되었던) 심헌섭 교수는 1995년 논문에서 위 세 가지 논변 하나 하나에 대하여 명쾌한 논리로 분석하면서 검찰의 법철학적 왜곡과 혼동을 설득력 있게 비판하였으며, “오늘날의 관점에서 더 타당하고 좀더 바람직한 법철학적 견해[법실증주의—인용자 첨가]에 입각했다라면 달리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까” 하는 “불만족감”을 토로하였다. ‘관변 법철학’으로서 검찰이 내세웠던 ‘왜곡된’ 법실증주의를 바로잡고자 심헌섭 교수는 자신의 평소 스타일을 떠나서 현실적 쟁점에 대하여 법철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권력의 행사를 정당화하기 위해 검찰이 동원한 법실증주의(오해된 법실증주의)에 대하여 학문적 관여를 한 점은 한국 법철학계에서 주목할 만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위의 논문을 쓰면서 ‘좀더 바람직한 법실증주의’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절감했는지 심헌섭 교수는 1998년 논문 ‘권위에 관하여—배제적 법실증주의에서 포용적 법실증주의에로’에서 법의 권위 문제에 집중하면서도 영국의 법철학자 라즈(Raz)의 배제적 법실증주의와 미국의 법철학자 콜먼의 포용적 법실증주의 논의를 고찰한다. 법개념론과 법효력론 차원에서 대두하는 법과 도덕의 연관성 문제를 둘러싸고 법실증주의자 내부의 논쟁과 분화를 다루었던 이 논문은 영미권 법철학의 새로운 동향을 소개하여 법개념론 및 법효력론 분야에 새로운 전기를 제공하였다고 평가된다. 이후 일군의 소장·중견 법철학자들이 이 논문에 주목하여

법철학적 탐구를 계속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학위 논문들에서 수준 높은 성과가 이루어지고 있다.

## 2. 정의론의 차원에서

90년대 법철학 분야의 특징은 정의론에 대한 연구가 더 깊어 졌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심헌섭 교수의 논문 ‘독일 철학 및 법철학에서의 정의론의 동향’(1993)과 ‘정의의 실질적 기준에 관한 연구’(1995)가 대표적이다. 심헌섭 교수는 당시 정의론 5부작을 구상하면서 정의론에 대하여 천착하였다. 또한 박세일 교수가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법과 정의의 문제를 다루었으며, 그 성과는 ‘Friedrich A. Hayek에 있어서의 법과 경제’(1990)와 ‘법적 정의와 경제적 효율’(1998)이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연구성과는 최병조 교수의 ‘로마법률가들의 정의관’(1990)이다. 로마법률가들이 정의논변을 어떤 맥락에서 사용하며, 정의논변에 어떤 역할을 부여했는지를 연구한 이 논문은 현대의 법적 추론에서 정의논변이 활용되는 양상과 정의논변의 역할을 가늠하는 데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법적 영역에서 정의론(법적 정의론)을 구상하는 데도 매우 유용한 아이디어들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최병조 교수의 아이디어를 계승하여 현대 한국 법체계에서 정의논변의 활용양상을 분석해보는 데 매우 훌륭한 연구성과들이 나올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바이다.

미술(회화와 조각)에서 정의의 상징이 어떤 방식으로 등장하는지를 흥미롭게 분석한 논문이 1996년 발표되었다. 최종고 교수가 1996년 5월 취리히 대학 법제사연구소에서 강연한 내용으로서 그 제목은 ‘Recht und Gerechtigkeit in der Kunst: Vergleichende Rechtssymbolik’이다. 동서양 회화와 조각을 비교하여 정의의 상징이 어떤 양상으로 구현되는지를 고찰한 이 논문은 정의의 상징이 현실의 인간들 삶에 깊숙하게 스며들어 있음을 규명한 것이다.

## 3. 정치철학과 법철학의 연계

한국 사회의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민주주의, 법치주의, 자유주의에 대한 관심이 법철학으로 수용되어 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우선 박세일 교수의 ‘J.S. Mill의 사회개혁론’(1991), 유기천 교수와 헬렌 실빙 교수의 ‘The Foundation of Democracy: Its Origins and Essential Ingredients’(1992)가 대표적이다. 1994년 안경

환/김종철 교수의 ‘Bentham, Modernity and the Nineteenth Century Revolution in Government’, 심헌섭 교수의 ‘자유민주적 법치국가와 아나키—U. Klug 교수 추모에 부쳐’(1997)도 정치철학적 견해(‘질서 잡힌 아나키’)와 법철학(‘법률적 아나키즘’, ‘권력 없는 법률과 자유’, ‘자유민주적 법치국가의 이상형’) 사이의 연관성을 논구한 논문들이다. 특히 최대권 교수의 ‘선한 사회의 조건: 법치주의를 위한 담론’(1999)은 한국 사회가 선한 사회가 되기 위한 정치적, 법적 여건에 대하여 저자가 오랫동안 사색한 결과물을 담고 있어 매우 중요한 논문이라고 생각하는 바이다. 저자의 견해에 동의하건 하지 않건, 한번 일독해야할 가치가 있는 역작이다.

#### 4. 규범이론의 토대 확립

법학의 근본요소는 법규범이다. 이에 대한 연구 없이 법학 및 법철학의 발전이란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심헌섭 교수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1996년 ‘규범의 일반이론에 관한 연구—서론적 고찰’을 발표하였다. 서구 철학 및 법철학 분야에서 성취한 규범논리학과 규범이론의 연구 성과를 깊이 있게 소화하여 정리하였고, 규범의 근거지움 또는 정당화 문제까지 다룸으로써 국내 법철학의 연구 지형에 신기원을 열었다. 그리고 1999년 ‘근본규범 소고’를 발표하면서 켈젠 법규범이론에 대한 학계의 인식을 드높였다. 실제로 서양의 법철학 수준에 비추어볼 때 국내 법철학의 약점이 규범론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심헌섭 교수의 연구성과를 계승하여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 국내 법철학자들의 과제라고 생각하는 바이다.

#### 5. 라트부르흐 법철학 연구의 심화

국내외에서 라트부르흐 전문가로 높게 인정받고 있는 최종고 교수가 라트부르흐의 사상을 입체적으로 연구하여 일련의 논문들을 발표하였다. ‘G. 라트부르흐에 있어서 ‘법과 시’(1994), ‘G. 라트부르흐의 형법사상’(1994), ‘G. 라트부르흐에 있어서의 법과 종교’(1995), ‘G. 라트부르흐와 현대법사상’(1995)은 독일 통일 이후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라트부르흐의 법철학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라트부르흐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G. 라트부르흐와 현대법사상’은 1995년 당시 한국의 법현실과 맞물려 라트부르흐의 법철학이 갖는 의미와, 현대 서구 법철학에서 라트부르흐가 부각되는 까닭을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한 논문이다.

## 6. 현대의 상황에서 법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

최대권 교수의 ‘Informal ways versus the formal law in Korea’(1995), 서원우 교수의 ‘韓國法에 있어서 法化 問題’(1996), 최종고 교수의 ‘통일 독일에서의 법사상의 변화’(1997)는 새롭게 변화되고 있는 현대법의 상황에서 법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를 조망하고 있는 논문들이다. 또한 안경환/김종철 교수의 ‘영국법과 미국법의 비교 연구 V—법이론(1), (2)’(1999)도 영국과 미국에서 법철학의 흐름을 개관하고 상세하게 소개하여 영미권 법철학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심화시켜 주었다.

## 7. 한국사회와 법철학

90년대 법철학의 특징은 한국 사회의 법현실과 관련된 고찰을 자신 있게 하기 시작했다는 데 있기도 하다. 최종고 교수의 ‘Legal Philosophy and Theory in Korea’(1991), 앞에서 든 심현섭 교수의 ‘5·18 불기소 처분의 논거에 대한 법철학적 재검토·분석과 비판’(1995), 최종고 교수의 ‘Confucianism and Law in Korea’(1996), 카톨릭 대학교 법학과 박동균 교수의 ‘한국 사회의 법윤리’(1998), 최종고 교수의 ‘유기천의 법사상’(1999)이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집필된 논문이라고 할 수 있다.

## 8. 동아시아 법철학 연구

1995년 최종고 교수는 동아시아 법철학을 구상하면서 그 가능성을 타진하는 논문(‘Ancient and New Sources of Law: An East Asian Perspective’)을 발표하였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 구상을 구체화해가기 시작한다. 1996년의 논문 ‘Confucianism and Law in Korea’, 1999년의 논문 ‘동아시아 보편법론—한중일 법사의 기본과제’는 그러한 원대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90년대 법철학 관련 논문들을 연도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번	제목	필자	발행호수	발행년
1	법개념에 관한 논의—Dreier, Hoerster, Krawietz 사이의 논쟁을 보고	심현섭	제31권 제1/2호	1990
2	Friedrich A. Hayek에 있어서의 법과 경제	박세일	제31권 제3/4호	1990

3	로마법률가들의 정의관	최병조	제31권 제3/4호	1990
4	Legal Philosophy and Theory in Korea	최종고	제32권 제3/4호	1991
5	J.S. Mill의 사회개혁론	박세일	제32권 제3/4호	1991
6	The Foundation of Democracy: Its Origins and Essential Ingredients	Paul K. Ryu/ Helen Silving	제33권 제1호	1992
7	영국법과 미국법의 비교연구(IV): 法源의 정립과 구체적 적용	안경환/ 김종철	제33권 제2호	1992
8	독일 철학 및 법철학에서의 정의론의 동향	심헌섭	제34권 제3/4호	1993
9	Ota Weinberger의 제도적 법실증주의	심헌섭	제35권 제1호	1994
10	G. 라트부르흐에 있어서의 ‘법과 시’	최종고	제35권 제1호	1994
11	석우 황산덕 박사에 있어서의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	심헌섭	제35권 제3/4호	1994
12	G. 라트부르흐의 형법사상	최종고	제35권 제3/4호	1994
13	Bentham, Modernity and the Nineteenth Century Revolution in Government	안경환/ 김종철	제35권 제3/4호	1994
14	정의의 실질적 규준에 관한 연구	심헌섭	제36권 제1호	1995
15	G. 라트부르흐에 있어서 법과 종교	최종고	제36권 제1호	1995
16	Ancient and New Sources of Law: An East Asian Perspective	최종고	제36권 제2호	1995
17	5·18 불기소 처분의 논거에 대한 법철학적 재검토-분석과 비판	심헌섭	제36권 제3/4호	1995
18	G. 라트부르흐와 현대법사상	최종고	제36권 제3/4호	1995
19	Informal ways versus the formal law in Korea	최대권	제36권 제3/4호	1995
20	한국법에 있어서의 법화 문제	서원우	제37권 제1호	1996
21	Confucianism and Law in Korea	최종고	제37권 제2호	1996
22	규범의 일반이론에 관한 연구—서론적 고찰	심헌섭	제37권 제3/4호	1996
23	Recht und Gerechtigkeit in der Kunst: Vergleichende Rechtssymbolik	최종고	제37권 제3/4호	1996

24	자유민주적 법치국가와 아나키	심헌섭	제38권 제1호	1997
25	통일 독일에서의 법사상의 변화	최종고	제38권 제1호	1997
26	법적 정의와 경제적 효율	박세일	제39권 제1호	1998
27	한국 사회의 법윤리	박동균	제39권 제1호	1998
28	권위에 관하여—배제적 법실증주의에서 포용적 법실증주의으로	심헌섭	제39권 제2호	1998
29	유기천의 법사상	최종고	제40권 제1호	1999
30	영국법과 미국법의 비교연구(IV)—법이론 (1)	안경환/ 김종철	제40권 제1호	1999
31	동아시아 보편법론-한중일 법사의 기본과제	최종고	제40권 제2호	1999
32	영국법과 미국법의 비교연구(IV)—법이론 (2)	안경환/ 김종철	제40권 제2호	1999
33	근본규범 이론 소고	심헌섭	제40권 제3호	1999
34	선한 사회의 조건: 법치주의를 위한 담론	최대권	제40권 제3호	1999

## VI. 2000년대: 심화, 다양화, 구체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서울대학교 법학에 게재된 법철학 관련 논문들의 특징은 90년대의 다양성이 더 강화되고, 이론적 깊이가 더해지고(심화), 법철학적 방법론이 법현실과 관련하여 구체화되어 간다는 점이다.

### 1. 법학방법론 차원: 심화와 다양성

2000년 12월에 법학방법론이 다양한 시각에서 다루어졌다. 우선 김일중 교수의 법경제학적 법학방법론(‘과학적 법학연구를 위한 경제학도의 몇 가지 소고’), 법사회학적 법학방법론으로 최대권 교수의 ‘법적 결정과 법사회학: 과외금지위헌 결정을 중심으로’), Martin Shapiro 교수의 ‘Judicial Interpretation and Social Science in the U.S.A.’가 발표되었다. 양창수 교수는 스위스 민법학 교수인 크라머(Kramer) 교수의 법학방법론을 읽고 서평 형식으로 쓴 논문(‘법발견의 다양한 양상 또는 실정법학자의 법학방법론—크라머의 『법학방법론』을 읽고’)에서 민법학자



의 시각에서 법학방법론에 대한 견해를 개진하였다. 민법의 영역에서 법학방법론이 가지는 의의와 과제를 서술하여 법철학과 민법학의 교차점을 훌륭하게 묘사한 논문이다. 형법분야에서는 이용식 교수가 ‘형법해석의 방법’(2005년 제46권 2호)을 발표하였고, 민법분야에서는 2007년 최봉경 교수가 ‘편집상의 오류’(제48권 1호)에서 범함결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헌법분야에서의 이익형량의 구조를 분석한 김도균 교수의 ‘법적 이익형량의 구조와 정당화 문제’(2007)이 있다.

2005년 허성욱 교수가 ‘정치와 법: 법원의 법률해석기능에 대한 실증적 고찰에 관하여’를 발표하여 공공선택 및 법경제학적 시각에서 사법부의 법률해석 활동을 분석하였다. 또한 양현아 교수는 ‘실증주의 방법론과 여성주의 법학’에서 사회과학적 방법론에 충실한 여성주의 법학방법론을 제기하여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 탐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2006년 양현아 교수는 그 문제의식을 좀더 발전시켜 ‘사회학적 사고와 법해석의 교감을 위하여’를 발표한다. 또한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학과 김홍우 교수는 ‘헌법의 시민적 읽기—한국 헌법학 반성을 위한 프롤로그—’를 발표하여, 비록 그 대상은 헌법으로 국한했지만 법적 사유 또는 법해석에서의 협소한 시각을 비판하면서 현상학적 방법론에 입각한 법해석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법학방법론에 대한 문제의식은 더욱 심화되어 2007년 조홍식 교수가 ‘경제학적 논증의 법적 지위’라는 논문에서 법원의 법해석을 실마리로 해서 경제학적 논증이 법적 추론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어떤 지위를 부여받아야하는지에 대하여 매우 면밀하게 고찰하였다. 허성욱 교수 역시 법경제학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키려는 목적에서 ‘법의 경제적 분석에 관한 몇 가지 오해에 관한 고찰’을 발표하여 법경제학적 법학방법론의 정수를 보여준다. 2009년 윤진수 교수가 ‘법의 해석과 적용에서 경제적 효율의 고려는 가능한가?’라는 논문에서 독일에서의 연구를 소재로 삼아 적어도 민법영역에서 경제적 효율성은 법원리로서 작동하고 있음을 논증하였다.

2008년 12월 선문대학교 안성조 교수가 ‘괴델정리의 법이론적 함의’라는 매우 흥미로운 논문을 발표하여 법적 판단의 인식론적 전제 자체를 성찰하였다. 2009년 3월 김혁기 박사가 ‘법해석에 의한 모호성 제거의 불가능성’을 발표하여 그동안 법의 불확정성과 모호성과 관련하여 불모지나 다름없던 법철학계에 새로운 문제제기를 하여 주목을 끌었다.

## 2. 근본적 법률개념들에 대한 연구

법적 판단에서 활용되는 개념들 중 자유와 공익, 권리가 대표적일 것이다. 그 동안 이러한 근본적인 법률개념들에 대한 탐구가 미흡하였는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분석이 이루어진다. 우선 우리 헌법의 근본가치인 인도주의에 대한 심헌섭 교수의 연구 ‘법과 인도성—과학적 인도주의를 바탕으로’(2001), ‘법과 자유—법가치로서의 자유에 관한 고찰’(2001), 권리 개념을 분석한 김도균 교수의 ‘법적 권리에 관한 연구 (I)’(2002), 법적 개념으로서의 공익에 대한 연구인 ‘법원리로서의 공익’(2006)을 발표하였다. 또한 조홍식 교수가 ‘법에서의 가치와 가치판단: 원고적격의 규범학(I)’(2007)에서 가치개념들이 법적 판단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인 영역에서 고구하여 주목을 받았다.

## 3. 법철학과 정치철학: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정치철학과 법철학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관심사는 더 깊어져서 2000년대에 들어서면 많은 연구가 쏟아져 나왔다. 우선 법제사 분야이기는 하지만 2002년 정공식 교수가 ‘조선시대의 권력분립과 법치주의’를 발표하여 조선시대의 법체계를 바라보는 시각을 풍부하게 하였다. 2004년 조홍식 교수가 ‘민주주의와 시장주의’라는 매우 흥미로운 논문에서 서구에서 확립된 민주주의 철학을 소화하고 민주주의, 법, 시장을 바라보는 참신한 시각을 제공하였다. 김도균 교수는 2005년 법치주의에 대한 법철학적 분석을 복한 법체계에 적용해본 ‘복한 법체계에서의 법개념론과 법치론에 관한 고찰’을 발표하였다. 조홍식 교수는 2008년 ‘勿輕視政治’라는 논문에서 ‘민주주의, 사법부, 법치주의’ 사이의 긴장관계를 규명하고 한국 사회에서 점증하고 있는 과도한 사법부기대론을 비판한다. 또한 서강대 정치학과 강정인 교수의 ‘민주화 이후 한국정치에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충돌’(2008), 인하대 정태욱 교수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관계에 대한 한 시론’(2008), 스위스 바젤 대학교 Kurt Seelman 교수의 ‘Rechtsstaat und Demokratie’(2008)가 주목할 만한 논문들이다.

## 4. 동아시아 법철학

최종고 교수는 동아시아 법철학 프로젝트를 심화하여 ‘Ancient Foundations of East Asian Jurisprudence: Confucianism, Legalism, and Taoism’(2002), ‘Law and

Custom in Korean Society: A Historical and Jurisprudential Approach'(2006)를 발표하였다.

## 5. 지구화와 법이론

지구화 시대에서 법철학의 대응과 변화에 관심을 쏟아왔던 박은정 교수는 ‘지구화와 법이론’(2007)을 발표하였다.

## 6. 라드부르흐와 괴테

최종고 교수는 ‘괴테의 법사상-라드부르흐 법철학에서 괴테 수용’(2001), ‘법률가 괴테’(2001)을 발표하여 괴테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 7. 한국의 법현실과 법철학

한인섭 교수는 ‘국가폭력에 대한 법적 책임 및 피해회복-5·18 민주화운동의 법적 해결을 중심으로’에서 이른바 이행기 하에서 민주주의, 정의, 법치주의 문제를 다루었다.

## 8. 법철학 고전의 번역과 논평

최병조 교수는 ‘법과 철학 사이에서—헤겔 <법철학> 국역본에 대한 총평: 계약론 부분을 예증 삼아’(2009)에서 헤겔의 <법철학> 국역본 및 기타 서양 고전들의 국역본에서 나타나는 심각한 오류들을 지적하고 번역작업 시 이웃하는 학문들과 의사소통을 좀더 적극적으로 할 것과, 가능하다면 공동작업을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법철학 관련 논문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외국의 고전을 번역할 때 모름지기 지녀야 할 태도에 관하여 귀중한 제언들을 담고 있기에 학문의 기초를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여 마지막으로 언급한다.

# VII. 맺음말

『서울대학교 法學』 50년 법철학 관련 분야를 회고하면서 가지게 된 소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서울대학교 法學』에 게재되었던 법철학 관련 논문들은 대체로

새로운 연구주제를 탐구하여 국내 법철학계의 발전에 큰 동력이 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기존의 연구주제라 할지라도 더욱 깊게 넓게 연구함으로써 법철학 연구수준을 높여 왔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으로 법철학의 관심분야가 다양해지면서 다양한 영역에서의 연구자들이 법철학 관련 연구주제를 다루게 되었고, 이는 법철학의 발전을 가져왔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설령 법철학이 법현실에서 등장하는 쟁점들을 직접 다루거나 그에 대한 대답을 곧바로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항상 법현실을 염두에 두고서 현실적 쟁점들의 이면 또는 배후에 자리하고 있는 좀더 심원한 문제들을 고찰해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은, 앞으로 법철학 연구자들이 공부하고, 생각하고, 글을 쓸 때 지녀야 할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하는 바이다.